

5월 공간 음향으로 작품 제작 중인 독일 보도 하트비히 작가

# “힌츠펠터 발길따라 5월 현장 녹음”

### ‘택시운전사’서 모티브... 옛 국군병원, 상무관등서 소리 채집 아내 정재름 작가도 초청 총탄 소재 작업 중... 19~25일 전시

사운드 아티스트인 독일 작가 보도 하트비히(54)는 ‘소리’를 채집하고 음향을 녹음해 ‘작품’을 만들어낸다. 미국 휴스턴에서 바흐의 흔적을 좇기도 하고, 싱가포르의 풍경을 ‘소리’의 관점에서 잡아 아내 리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2016년엔 담양 대나무의 성장을 담은 작품 ‘초록이 자라는 소리’를 제작, 서울에서 전시하기도 했다.

코로나 19를 뚫고 광주를 찾은 그는 지금 ‘5월 현장의 소리’를 기록하고 있다. 5·18을 전세계에 알린 영상물을 제작했던 고(故) 위르겐 힌츠펠터 기자가 찾았던 길을 따라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작업이다. 지난 9월26일 한국에 도착해 2주간의 자기격리를 거친 그는 옛 국군병원, 전남도청, 5·18 기록관·5·18 묘역 등을 방문하고, 운상원 열사의 아버지 등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 명예 광주시민인 힌츠펠터의 묘지도 찾았다.

사)국제시각문화예술협회(대표 노정숙)와 광주 동구청의 미로센터 레지던시에 참여하고 있는 보도 하트비히를 작업실에서 만났다. 이번 레지던시에는 역시 베를린에서 활동중인 아내 정재름 작가도 참여하고 있다. 정 작가는 전남도청의 총탄 자국과 통독 전 독일 지역의 총탄 자국을 탁본으로 제작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뉘셀도르프 로버트 슈만 콘서트홀에서 사운드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하트비히 작가는 작품 활동과 함께 독일 국영라디오 방송에서도 일을 맡고 있다. 그는 역사적 사실들을 담고 있는 소리를 녹음하는 데 관심이 많아 동서독 분단의 상징같은 ‘열차’가 폐차되는 과정에서 나온 ‘소리’를 녹음하고 작품으로 만들기도 했다.

그에게 통독 30주년이자, 5·18 40주년인 올해는 의미가 있는 해다. 광주 체류가 결정됐을

때 그는 아내와 세 번이나 인터넷으로 관람했던 영화 ‘택시운전사’의 주인공 힌츠펠터를 떠올렸다.

“같은 독일 사람인 힌츠펠터씨가 40년 전 촬영했던 곳을 다시 찾아보고 있습니다. 힌츠펠터씨가 기자로서 했던 그 활동은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80년 당시 사진을 보면 그의 곁에 녹음기사가 있어요. 독일방송국에서는 음향을 아주 중시하기 때문에 그가 녹음했던 소리들을 통해 당시의 모습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 현장을 찾아 녹음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월 현장들을 직접 밟고 관련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광주에 대한 역사가 더 와닿고 실감난다고 했다. 그래서 독일로 돌아가면 방송국에서 광주 관련 자료를 찾아보려 한다. 첨단 녹음장비를 들고 광주의 10일간의 항쟁의 기억을 찾아다니고 있는 그는 소리를 채집하는 자신의 작업을 ‘공간 녹음’이라고 말했다.

“일반인들에게는 공간을 녹음한다는 게 얼핏 이해가 잘 되지 않을텐데, 소리를 녹음하는 것은 그 공간이 담고 있는 역사와 시간까지도 담아내는 작업입니다. 지금은 폐허가 된 옛 국군병원을 찾았을 때 그 곳에서 울리는 어떤 소리의 파장은 그 공간이 갖고 있는 시간들을 함께 담아내는 겁니다.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파장을 따라 40년의 시간을 추적할 수 있는 거죠. 그곳에서 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 창문으로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소리, 변화하는 도심의 여러 음향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시간과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 소리들을 전시장

에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트비히 작가는 상무관에서는 5월 당시 상황을 담은 글을 낭독하는 목소리와 첼로 연주 소리도 함께 담아낼 예정이다. 그는 지금은 울리지 않는 옛 국군병원 예배당의 ‘중소리’를 꼭 녹음하고 싶다고 했다. 40년 전 그 때 울렸을 중소리는 계엄군과 고문·폭행으로 치료받던 광주 시민들의 귀에 들렸을테고, 그 현장을 기억하는 중소리는 4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소리로 당시의 이야기를 전해줄지 궁금해한다.

그는 서라운드 음향 형식으로 작품이 설치되는 공간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와 거닐고, 움직이기도 하며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기억과 영감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뉘셀도르프에서 미술을 전공한 정재름 작가는 ‘광주’를 테마로 작업하는 것에 대해 부담이 컸다고 했다. 고민을 거듭하다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인근 교회의 ‘총탄 자국’을 탁본했다. 건물 바닥의 총탄 자국은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기억을 못하는 것들이다. 전남도청의 총탄자국을 회화적으로 형상화 두 지역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여준다. 또 환경미술에도 관심이 많아 신안 기점소악도 갯벌에서 작품을 제작중이다.

두 사람의 작품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미로센터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보도 하트비히 작가가 5·18기록관에서 오일 관계자들을 인터뷰하고 있다. <왼쪽> 5월 현장의 소리를 녹음 중인 하트비히 작가와 아내 정재름 작가.



## 광주전통문화관, 하반기 예술강좌 수강생 모집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2020 하반기 전통문화예술강좌(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좌는 광주시 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강사진을 구성했으며, 수강생들이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을 전수 받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다. 교육은 오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전통문화관 내 전수실과 입석당, 남도의례음식체험실에서 진행된다. 모집 부문은 판소리, 가야금병창, 전통음식 등

총 13개 강좌이다. 강사진으로는 ▲판소리= 방성춘(시도무형문화재 제16호 판소리춘향가 예능보유자), 이순자(제1호 남도판소리 예능보유자), 박미정(제16호 판소리춘향가 전수조교) ▲판소리고법= 양신승(제11호 판소리고법 전수조교) ▲가야금병창= 이영애(제18호 가야금병창 예능보유자), 황승욱(제18호 가야금병창 예능보유자) ▲청소년 가야금병창= 문명자(제18호

가야금병창 예능보유자) ▲전통음식= 이애설(제17호 남도의례음식장 기능보유자) ▲탕화: 송광무(제21호 탕화장 기능보유자) ▲장구만들기= 이복수(제12호 악기장 기능보유자) ▲전통다례= 강예심(한국전례원 광주광역시 동구지역원장) ▲민화=성혜숙(광주전통민화협회장)이다. 11월 5일까지 15명 이하로 모집하며 전통문화관 홈페이지, 직접방문, 전화 접수 가능하다. 수강료는 4만원(재료비는 별도). 문의 062-670-852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제 65회 호남예술제 발레 입상자

- |  |   |  |
|--|---|--|
| <p>&lt;심사위원&gt;<br/>박경숙(광주여자대 교수)<br/>정희지(전 광주교육대 교수)</p>  | <p>9 유현서(수원초5)<br/>▲등상<br/>12 황지성(살레시오초5)</p>   | <p>7 최서현(수원초4)<br/>▲등상<br/>1 박지은(광주광천초4)<br/>2 문윤진(염주초4)<br/>4 김재인(수원초3)<br/>8 엄수연(주월초3)<br/>9 박지후(완도중앙초3)</p> |
| <p>◇클래식 독무 초등부 3,4학년<br/>▲금상<br/>1 조민교(광주광천초4)<br/>▲은상<br/>5 김태연(광주광천초4)<br/>8 송재희(용주초4)<br/>▲등상<br/>3 송연지(광림초4)<br/>6 최윤지(태봉초3)</p> | <p>◇클래식 독무 중등부 3학년<br/>▲은상<br/>1 서하진(송광중3)</p>  | <p>◇창작 독무 초등부 5,6학년<br/>▲은상<br/>4 구재현(광주교대광주부설초5)<br/>▲등상<br/>1 박서진(학강초5)<br/>2 이소을(큰별초6)</p>                  |
| <p>◇클래식 독무 초등부 5,6학년<br/>▲최고상<br/>10 백다원(살레시오초6)<br/>▲금상<br/>1 송민찬(살레시오초6)<br/>6 김도혜(조봉초5)<br/>▲은상<br/>▲은상</p>                       | <p>◇창작 독무 초등부 1,2학년<br/>▲금상<br/>2 안리혜(태봉초2)<br/>6 장서우(광주광천초2)<br/>▲은상<br/>5 이지아(완도중앙초1)<br/>7 김나현(유안초2)</p> | <p>◇창작 독무 중등부 1학년<br/>▲등상<br/>1 김예은(화정중1)</p>  |

※ 장려상 입상자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 70억3700만뷰 ‘아기상어 댄스’, 유튜브 조회수 1위

동요 ‘상어가족’의 ‘아기상어 댄스’ 영상이 유튜브에 게재된 모든 콘텐츠 가운데 조회수 1위에 올랐다.

‘상어가족’을 만든 콘텐츠 기업 스마트스터디는 ‘아기상어 댄스’ 영상이 2일 오후 조회수 70억 3700만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아기상어 댄스’ 영상은 2017년 8월부터 정상을 지킨 미국 가수 루이스 폰시의 메가 히트곡 ‘데스파시토’(Despacito) 뮤직비디오를 제치고, 동으로는 최초로 유튜브 최다 조회 영상이 됐다.

이 영상은 스마트스터디가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내놓은 동요인 ‘상어가족’을 어린이들이 등장해 영어로 노래 부르며 율동하는 영상이다.

2016년 6월 공개된 뒤 ‘베이비 샤크 푸루루~’라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와 따라 하기 쉬운 안무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상어가족’ 노래 역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



트인 ‘핫 100’에서 32위,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 6위에 오르는 등 세계적으로 흥행했다.

/연합뉴스

## 베토벤 가곡의 밤 ‘멀리 있는 연인에게’

### 5일, 전남대 예향홀 박홍우·신수경 협연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음악회 ‘베토벤 가곡의 밤’이 오는 5일 오후 7시30분 전남대 예술대학 예향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의 부제는 ‘멀리 있는 연인에게’로 베토벤의 연가곡 제목에서 따왔다.

‘멀리 있는 연인에게’(1816)는 베토벤이 젊은 의사 아이테레스가 쓴 6편의 시에 곡을 붙인 것으로,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베토벤이 46세에 작곡, 사랑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그리고 있다.

이날 공연에서는 ‘켈레르트의 시에 의한 6개의 노래’와 ‘아멜라이데’, ‘입맞춤’, ‘그대를 사랑해’, ‘5월의 노래’, ‘예수의 환희’ 등을 들려준다. 또 ‘생각’, ‘작별’, ‘이 어두운 무덤 안에 에 이어 마지막 곡 ‘멀리 있는 연인에게’를 선사한다.

무대에는 바리톤 박홍우와 피아니스트 신수



바리톤 박홍우 피아니스트 신수경

경이 오른다. 박 씨는 중앙대 음대와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대를 졸업했다. 이후 국내외 다수의 무대에 올랐으며, 난파소년소녀합창단 음악감독, 가곡전문 연주단체 리더라이히 대표로 활동중이다.

신 씨는 서울대 음대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고, 미국, 독일, 헝가리, 체코 등에서 독주회를 열었다. 현대 전남대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문의 062-530-0120.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삼진그룹 영어토막반
2관	삼진그룹 영어토막반
3관	담보, 위플래쉬, 테슬라 마이 리틀 포너: 레인보우 로드 트립
4관	삼진그룹 영어토막반
5관	담보
6관	삼진그룹 영어토막반
9관	소리도 없이
7관 씨네커튼	다만 밖에서 구하소서 파이널컷 소리도 없이
8관 씨네커튼	미스터트롯: 더 무비, 위플래쉬, 소리도 없이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전시  
**경계의공간**  
2020. 9.1.(화) ~ 11.1.(일)  
광주문예회관 갤러리

GAC기획공연 FOCUS  
**코리안집시'상자루의길'**  
2020. 11. 10.(화) 19:3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GAC기획공연 FOCUS  
**연극 '청문남여도망친 100세 노인'**  
2020. 11.18.(수) ~ 19.(목) 19:3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